

보도일시 | **2024년 12월 30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생포문화창고 개관 이후 관람객 50만 명 넘겨 - 장생포애니메이션영화제와 팝업공연 축제로 인기몰이 -

장생포문화창고(고래문화재단 운영)는 2024년을 마무리하며 놀라운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2024년 장생포문화창고를 찾은 방문객은 총 192,926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11% 늘어난 것으로 개관 이후 비약적으로 늘어 문화창고가 비로소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여 누적 50만 명이 12월 넘었으며, 올해만 해도 2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최대 성황을 보여주었다.

장생포문화창고는 과거 폐허가 된 생선 냉동창고를 개축하여 산업의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울산 남구의 부단한 노력으로 2021년 6월 울산의 대표적인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신하였다. 예술가들의 아이디어와 남구청의 노력으로 탄생한 장생포문화창고는 개관 후 3년 만에 2023년 문화체육부의 ‘지역 명소 로컬100’에 선정되었고, 행안부의 ‘지방자치경영대전 문화행정 부문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울산 남구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2024년은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활성화한 해였다. 2024년 장생포문화창고는 복합문화공간답게 공연과 전시, 체험, 교육이 상시 운영과 더불어 ‘제2회 장생포 영화아카데미(단편영화제작 및 감독영화제)’와 ‘제1회 장생포애니메이션영화제’ 및 ‘팝업공연축제’를 개최 확대하였다. 장생포 영화아카데미는 영화가 대중에게 공개되기까지 다양한 과정을 알아보며 시민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상반기에는 장생포를 배경으로 한 3편의 단편영화(코로나 시대의 사랑, 안녕 첫사랑, 아무도 모른다)를 제작하였고 하반기에는 김수철 음악감독과 이재한 영화 감독을 초청하여 영화 음악을 주제로 감독과 참여자들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였다.

장생포애니메이션영화제는 여름 방학 기간 가족 초청행사로 장편 10편과 단편

10 작품을 상영하였다. 개막작(우리들의 새벽)과 폐막작(괴도 쿨은 서커스를 좋아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상영하는 프리미어 작품이었다. <소중한 날의 꿈>의 감독 안재훈과 <스트레스 제로>의 이대희 감독을 초청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의 뒷얘기와 디렉션 등을 소개하여 관객은 물론 애니원고등학교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팝업공연축제는 30분 이내의 짧은 퍼포먼스 위주의 공연으로 10월 9일부터 나흘간 9개 작품을 18회 공연하여 다양한 공연 수요를 충족시켰다. 두 축제 모두 23년도 파일럿 형태로 운영하여 테스트하고 올해는 본격적인 축제 형태로 운영하였다.

공연은 판소리 그림자극<와그르르 수궁가>를 시작으로 어린이 공연 국내 5개 작품과 해외 3개 작품을 67회 공연하였고, 인디인 장생포와 연말 크리스마스 공연까지 137회 모두 매진 사례를 이었다. “공연의 불모지인 울산에 전 공연 매진 사례는 놀라운 사건” 이라고 울산 공연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전시는 4개의 주제로 운영되었다. 3층에는 미디어전시관과 울산작가 지원 전시를 4층에는 그림책전시관과 K작가 초대관으로 운영하였다. 여기에 상설관으로 대한민국 산업 역사를 알리는 ‘공업센터기공식기념관’ 을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전시관은 인상파 시리즈로 폴 세잔을 6월까지 클로드 모네를 11월까지 운영하였고 12월부터 폴 고갱의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를 전시하고 있다. 울산작가 지원 전시는 남지향의 <기하학적 관계와 사고>를 시작으로 그룹 헥사곤의 <경계 너머>까지 5회, K작가 초대전에는 이탈리아 죠반니 피오레토의 <영혼의 그림자들>부터 7명의 초대작가의 작품을 전시했으며, 이탈리아 볼로냐의 국제도서전에서 수상한 그림책 원화부터 우리나라 그림책의 역사까지 어린이 그림책 원화 전시를 이어갔다.

또한 11월에는 한·중·일 비엔날레급 작가 10명이 참여한 기획 전시인 <인류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성황리에 마쳤고, 12월부터는 영남권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상상 그 무엇, 예술을 입히다.>전시도 운영 중이며 내년 2월까지 만나볼 수 있다.

체험은 전문적인 예술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이용객이 전년 대비 105%가 증가하였다. 24년 초 공모를 통해 전문 예술교육업체 3개를 체험관에 상주시켜 보다 전문적인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드로잉 위주의 체험, 도자기 빗기처럼 만들기 위주의 체험, 신체 놀이 위주로 운영하였다. 명절 등 계기성 이벤트와 어린이 인문학 강의를 체험과 결합한 어린왕자 프로그램으로 올해 관람객 증가에 큰 역할을 하였다.

문화창고는 클래식 음악 수요도 충족하고 있다. 울산 남구 교향악단 연습실과 시민 음악아카데미를 총 330회 운영하고 있으며, 중연습실과 개인 연습실도 이용 실적이 1,096건으로 전년 대비 56%로 증가하였다. 올해는 색소폰 강좌를 추가하여 중장년의 예술 욕구를 충족하여 95.1점이 넘는 고객만족도와 호응으로 25년에는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으로 수강인원을 늘려 모집한다.

25년 장생포문화창고는 좋았던 콘텐츠는 보장하고 부족한 것을 덜어내며 축적된 운영 노하우로 더 풍성한 콘텐츠 계획을 세우고 장생포고래문화특구의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하여 품격 높은 문화공간으로 중심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붙임1: 자료사진]



[붙임2: 운영성과 지표]

□ 연도별 이용객수

(2024. 12. 20.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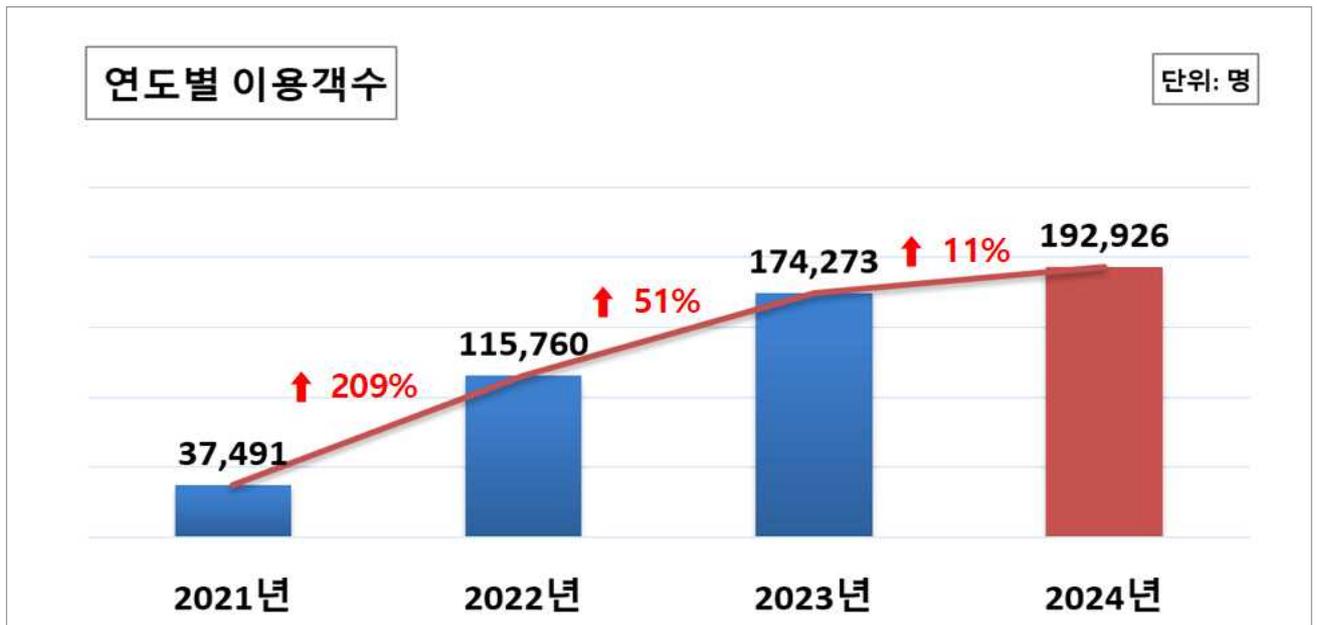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예상)	전년대비 증감	
이용객수	이용객수	이용객수	이용객수	이용객수	증감률(%)
37,491	115,760	174,273	192,926	↑ 18,653	11%

※ 누적 이용객수: 517,250명(12월 1일 50만 돌파)

□ 연도별 이용객수 증감

2021년 6월 개관 (단위: 명)

2021년	2022년(전년대비증감)		2023년(전년대비증감)		2024년(예상)	
이용객수	이용객수	증감인원(%)	이용객수	증감인원(%)	이용객수	증감인원(%)
37,491	115,760	↑ 78,269(209%)	174,273	↑ 58,513(51%)	192,926	↑ 18,653(11%)



12월 크리스마스 즈음하여 20만 관객이 달성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 이후 관람객이 줄어 마지막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음.

□ 체험 프로그램

(2024. 11월말 기준/ 단위: 건/회)

체험 프로그램				시민음악 아카데미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증감(%)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증감(%)
8,280	12,069	24,739	↑ 12,670(105%)	168	282	330	↑ 48(17%)



계	자체 체험	상주단체(유료)			
		소계	나르샤	굿세라	새김
24,739	17,747	6,992	3,100	1,594	2,298

□ 음악 연습실

(2024. 11월말 기준/ 단위: 건)

음악 연습실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증감(%)
254	702	1,096	↑ 394(56%)



음악연습실은 꾸준히 이용률이 증가하여 대관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26.